

## 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을 위한 방향과 과제

김혜영\*

**Kim, Heyoung. (2021). The futur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English education in the post-COVID-19 era. *English Teaching*, 76(s1), 87-10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dict educational transformation in the post pandemic era and address a new agenda for participants in both education and academia of Korean EFL. First of all, this article calls attention to rapid societal changes due to technology for the last few decades, particularly in facets of language use, knowledge building, and learning paradigm. Second, this study attempted to articulate unprecedented challenges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for adapting to educational reform in the digital society: 1) defining digital literacy from the second language (L2) perspective, 2) relocating English curriculum within digital learning ecology, and 3) achieving normalization of Korean school English curriculum. For successful transition, this paper finally suggests that a united voice is needed from participants and that new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in English education to connect educators,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to each other empowered by major academic associations such as KATE.

**Key words:** post-COVID 19, English education, educational transformation, digital literacy, future curriculum/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 교육개혁,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 교육과정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20.

\*Author: Heyou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06974, Korea; Email: [englishnet@cau.ac.kr](mailto:englishnet@cau.ac.kr)

Received 13 May 2021; Reviewed 3 July 2021; Accepted 30 August 2021



© 2021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KAT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4.0, which permits anyone to copy, redistribute, remix, transmit and adapt the work, provided the original work and source is appropriately cited.

## 1. 서론: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가 급변하는 미래 사회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지 불과 수개월 밖에는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학술 연구물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2021년 5월 현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검색결과, 출판된 국내 학술 논문의 무려 785편의 제목에 ‘포스트 코로나’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전세계를 대혼란 속에 빠뜨린 팬데믹(pandemic)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에 미칠 변화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영어교육 분야 역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분석과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해볼 시점이 되었다.

사실상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위기가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사교육의 주범으로서 십 수년간 비난을 받아오며 초·중·고 영어 교과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대폭 감소되었고, 이후 영어 절대 평가제 실시 등의 정책적인 영어교육 약화, 그 밖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임용 축소,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외국어 학습 대체 위협, 그리고 이번 COVID-19로 인한 언택트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직면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 초 급성장하였던 학문으로서의 영어교육은 20년만에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55년간 부단하게 성장하며 중흥기를 누리왔던 한국영어교육학회의 역사(Y. Kim & H. Kim, 2015)를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최초로 맞게 되는 시련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영어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다. 상당부분은 인문학의 쇠퇴, 디지털 사회의 도래, 정부 정책 방향, 경제의 침체, 인구 문제 등 국내·외 사회 전반의 변화와 맞물려 다른 학문 분야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외부 환경의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영어교육의 학계와 교육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변화된 사회에 대한 인식, 현재 영어교육에서 해결하지 못한 오랜 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미래 사회의 도전에 대응할 장기적인 체질 변환을 위해 영어교육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도리어 첨단 기술과 교육의 미래를 무조건 연결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교육 현안이 무시되고, 실제 없는 허상을 좇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Lee, 2017).

그러나, 많은 연구(Yeo, 2020; Lee, 2020; Lee, Jung, & Jung, 2021; Hwang, 2020)에서 예측하는 것과 같이 영어교육의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회 변화,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언택트 교육 확장 등의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고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특히 이에 따른 교육과정 및 평가, 그리고 학습 관리 및 교수법 등의 변화도 뒤따를 것으로 판단된다(Hwang, 2020).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영어교육의 모형 구축, 영어교육의 연구 어젠다(agenda) 발굴 등,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참여자인 인간의 행동 방식과 사고 체계가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사회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은 지난 수 십 년간 많은 연구를 통해 설명되어왔다(Hall, 2002; Ito et al., 2010; Kim & Lee, 2018; Kress, 2003). 특히 언어 학습에서 이러한 학습자의 언어 행동과 사고의 변화는 두드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21 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된 인간의 언어생활과 지식의 속성, 학습 방식 등 영어교육을 둘러싼 달라진 사회 현상을 되짚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영어교육이 당면한 핵심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육자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교육적, 연구적 측면의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 2.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된 사회 현상과 외국어 교육적 고찰

### 2.1. 네 가지 언어 영역의 변화

우리는 과거 20 년전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달라진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 21 세기에 들어오면서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많은 학자들은 온라인 언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Androutsopoulos, 2011). 일찍이 Warschauer(1999)는 ‘electronic literacy’로, Crystal(2006, 2011)은 ‘Netspeak’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언어적·사회적·문화적 고유성을 지적한 바 있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이라는 개념은 지난 십 수년간 컴퓨터보조언어학습(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CALL)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술 주제였으며, 독특한 온라인 언어 속성에 대한 해석과 외국어 교육적인 가능성을 왕성하게 탐색해왔다(Androutsopoulos, 2011; Baron, 2008; Herring, 2004; Levy & Stockwell, 2007; Nguyen, 2008; Thorne, 2003).

그러나 이때까지도 우리의 자연 언어와 컴퓨터 언어는 분리가 되어 연구되었고, 대부분 독립적인 두 개의 모드 간의 차이와 상호보완적인 교육 효과에 주로 주목해왔으며, 인간 언어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Kress(2003)의 “Literacy in New Media”와 The New London Group(1996)의 Multiliteracy Pedagogy 연구 등에서 인간 언어의 혁명적인 변화, 특히 multimodality 와 인간의 메시지 전달 방식과 언어적 사고 체계의 변화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Boyd 와 Ellison(2008) 연구 등에서 대두된 ‘social network,’ El-Hussein 과 Cronje(2010) 연구 ‘mobile learning’의 정의 등, 기술에 의한 언어의 변화가 있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통찰력있는 연구들은 수 세기를 이어온 인간의 언어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SNS 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CMC의 동시성과 비동시성의 경계가 무너지고, 최근 팬데믹 이후에는 대면·비대면의 구별 또한 모호하여 컴퓨터를 통한 소통과 전통적인 의사소통 간의 차이를 분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 결과 종전의 언어의 4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독립적인 특성이 사라지고, 변형과 결합을 통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성격의 언어로 진화하고 있다. 인간의 말하기는 구두 소통(oral communication)의 비율이 현저히 줄고, 문자 소통인 이른바 ‘톡하기’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듣기는 하나의 분리된 언어 영역으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졌다. 단독 듣기보다는 영상을 보면서 듣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면대 면으로 실시간으로 듣기보다 비 동시적인 녹음 파일의 재생이 압도적이다. 이 때문에 말하기 듣기의 고유한 특성이었던 즉흥성, 동시성, 소멸성이 축소되고, 대신 문자 언어인 읽기, 쓰기와 유사한 비동시성, 영구성의 속성을 갖게 되었다. 즉 말하기·듣기라는 구어 언어 영역의 고유성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해진 듯하다.

문자 영역인 읽기와 쓰기의 변화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우선 인간은 과거보다 텍스트를 읽는 양이 현격히 줄어들었고, 이미지나 영상으로 저자의 메시지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 읽기의 속성이 싱글 모드인 텍스트 읽기 대신, 멀티 모드인 ‘보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젊은 세대의 보편적인 학습스타일은 문서나 책보다는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보는 것으로 변했다 해도 무방하다. Kress(2003)와 그가 속해있는 The New London Group(1996)에서 최초로 주목한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y) 혹은 다중모드 리터러시(multimodal literacy)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보편적인 신 문해력(new literacy)으로서, 전통적인 텍스트 기반 리터러시의 개념을 대체해가고 있다.

전통적 작문은 가장 위태로운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손 필기 위주의 편지, 노트 필기, 보고서 작성 등은 대부분 타이핑으로 변화하였고, PC 기반 타이핑 또한 스마트폰 기반 타이핑인 이른바 ‘짹’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길고 비중 있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방식은 대개 학교 수업에서만 존재하며, 현실은 짧고 간단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혼합하여 사고를 구체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Kim & Lee, 2018). 아마도 이렇게 스마트폰의 키보드를 짹는 것이 일반 성인의 쓰기 활동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글에는 문자와 이미지 외에도 기호, 생략, 하이퍼링크, 동영상이 혼재되어 있으며, 정보 전달의 대부분은 링크와 타인의 글 소위 ‘핍(feed)’ 혹은 ‘복붙(copy and paste)’ 등이 잦아 자신의 고유한 생각이나 순수한 주장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크게 달라진 언어영역의 속성 및 언어 생활에 대하여 외국어교육의 관점에서의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토대로 하여 미래 영어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 언어의 4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분리하여 지도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 구두 의사소통과 문자 의사소통의 비중과 모드는 어떻게 조정해야하는가?
-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읽기 목적, 내용 및 장르)
- 어떻게 읽도록 해야 하는가? (읽기 정확성과 유창성, 읽기 전략, 메타인지)
- 무슨 내용을 왜 써야 하는가? (쓰기 목적, 작문 내용 및 스타일)
- 어떻게 써야 하는가? (작문 방식, 작문 도구 매체, 글 구성방식)
- 외국어 학습에서 뉴 리터러시를 어떻게 정의하고 훈련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교육계와 학계 모두에서 좀 더 공론화되고 연구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에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 2.2. 지식 습득의 변화된 양상

21 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학습에 있어서 구성주의 이론이 보편화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의 대상으로 정의하였던 지식의 개념도 크게 변화하였다. 과거의 지식은 권위를 인정받은 자에 의해 생성된 고정화된 진리였던 반면, 현재의 지식은 탈권위적이고 가변적이며 가치가 상대적이다(H. Kim, 2021a; Choi, 2008). H. Kim(2021a)은 Table1 과 같이 전통적인 지식과 변화된 현재의 지식 범위 및 습득 양상을 비교하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움의 대상으로 여기던 지식의 특성은 좌측에 나열 되어있으며, 현대인이 습득하고자 하는 지식의 특성은 우측에 해당한다. 요약해보면 과거 전통적인 지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철학적이고 심층적이며 영속성이 있는 제한적인 분량의 문서였다. 또한, 이 지식을 배우는 주체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으로 권위 있는 타인으로부터 지식을 전수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지식은 마땅히 체계적으로 배울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실 혹은 진리로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주로 습득하고자 하는 지식의 범위와 양상은 사뭇 다르다. 물론 전통적으로 이어온 지식(knowledge)의 본질적 속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정보(information)와의 경계선이 모호해졌다. 과거에 비해 실증적이고, 단편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누구나 생성해낼 수 있어 그 범위와 양은 무한대이며, 생성과 소멸의 속도도 빨라졌다. 지식은 개방적이고 접근성이 높으며, 개별적 내적 흥미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체계성이나 중요도를 결정하기 어렵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의 지식은 과거처럼 배우고 암기·숙달을 하는 고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검색하고, 생성하고, 구성하여 내재화 가능한 개인적이고, 평등한 것이 되었다.

**TABLE 1**  
**Changed Demand for Knowledge**

Past	Present
Conceptual, abstract	Factual, concrete
Profound	Concise
General, external	Individual, internal
Timeless, permanent	Timely, adjustable
Convention, authority-based	Interest, needs-based

Source: Kim, H. (2021a). Digital learning—Change of education ecology system. In J. Kim, Y. Kim, H. Kim, H. Kim, K. Ma, H. Park, H., ... M. Lee (Eds.), *Live in the digital age* (pp.151-182). Paju: Korea Academic Information.

이러한 변화된 지식의 가치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인이 습득하고자 하는 외국어 지식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외국어 교육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 따라 학습 대상이 될 외국어 지식은 대체로, 첫째, 학습자가 필요를 느끼는 실용적인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외국어 교육 지식은 권위적인 커리큘럼에서 이미 지정해 놓은 원칙에 근거하여 제시되어왔다. 과연 필요가 있는 지식인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고려된 바가 없었다. 둘째, 학습내용의 제시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시의적이며 단편적인 지식을 선호한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실제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교과서나 학습 교재가 과연 이러한 것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어 교육을 위한 강의 역시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부합하는지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식에 대한 접근방식이 개방적이고, 개별화 되어야한다.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교재와 제한된 지식을 일방향적으로 전달받는 현재의 교육방식은 21 세기 정보화 사회의 지식 변화와 커다란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듀테크 사회의 지식 전달을 위한 보다 평등한 방식의 플랫폼 설계 등 교수·학습 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 2.3. 학습패러다임의 변화

테크놀로지의 변천사와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는 깊은 관련성이 있다. 본격적인 디지털학습생태계를 국가적 전략적으로 제안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 비교적 최근이다(Kim et al., 2014) 외국어 교육에서 논의된 새로운 학습 환경과 학습 유형의 변화 등 디지털 외국어 학습 생태계의 속성을 설명할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러닝(mobile learning) 혹은 모바일보조언어학습(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 MALL)이다(Chinnery, 2006; Traxler, 2010). 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대표되는 MALL은 그 기술적 특성에 따라 독특한 언어 학습의 양상을 보인다. 언제 어디서나 시공의 개념이 없는 학습으로 ‘이동성(mobility)’이 강조된다. Kukulkska-

Hulme 과 Shield(2008)는 기존의 CALL 과는 다른 특성으로 지속성, 개별성, 맥락성 등을 강조하였다.

둘째,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이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학습은 주로 고정된 커리큘럼 하에 정형화된 시기, 기간 수업방식이 정해져 있다. 영어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권위있는 전문가에 의해 체계화된 커리큘럼에 따라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앞서서 설명한 지식의 변화된 개념과 모바일 러닝 등 변화된 학습패러다임은 점차적으로 형식이 없는 학습을 선호하고 있다. 학습자가 원하는 요구와 목적에 맞추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개별적인 영어학습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같은 공식적 교육기관에서는 완전한 비정형과 정형화된 교육사이에서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이 제시되기도 한다(Eshach, 2007). Kwon(2015)은 개별 MALL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비형식학습(non-formal learning)이 대학 영어교육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최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sup>1</sup>의 운영방식을 들 수 있다.

셋째, 개별화 학습(individualized learning)과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이다. 21 세기 디지털 사회에 개인 혹은 개인화(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초개인화라는 용어로 확장되고 있음)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학습 키워드이다. 2000 년대 이후 외국어 학습에서도 개인차 혹은 학습자요인에 대해 더욱 주목하기 시작하였다(Dörnyei & Skehan, 2003; Ehrman, Leaver, & Oxford, 2003). 제 2 언어습득에서 개별화 학습에 특별히 주목한 것은 역시 테크놀로지 결합 학습 환경에서 였다(Chapelle, 2009).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 요인에 따라 교수 학습과 개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반면 사회적 학습은 개인으로서의 내가 참여하는 사회적·문화적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말한다. 최근에는 SNS 를 통한 상호작용이 빈번한 만큼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된 언어 습득, 언어 지식 학습 등이 주로 논의되어왔다(Harrison & Thomas, 2009). 학습이 주로 지정된 학교와 교사에 의해 주도되고 이루어져왔지만 이제는 학습자 스스로 맺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학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새로운 학습패러다임을 토대로 21 세기 학습자의 외국어 지식 습득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미래 영어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 디지털 자료 활용의 종류와 제공 방식: 강의 영상, 실제적 자료, 실시간/비실시간, 개방형 플랫폼 여부, 개별화를 위한 분류 방식 등
- 학습자 중심성: 교과, 교수 선택, 학습 내용, 방법, 시간의 선택 여부
- 비정형성: 학습 자율성 허용 여부, 교수자의 역할(상담, 코칭, 학습촉진 조력(facilitation))

<sup>1</sup> Minerva School <https://www.minerva.kgi.edu/>

- 개인화: 학습자 요인별 데이터 관리, 개별 피드백, 개별화 평가 방식
- 사회적 학습: 상호작용 기회, 협동학습, 사회적 교류를 통한 외국어 학습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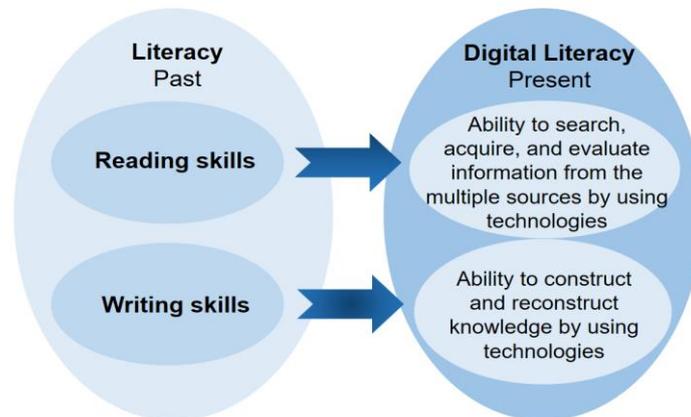
새로운 외국어 교육과정, 영어교육 연구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된 지식 개념과 학습 패러다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3. 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의 핵심 도전 과제들

#### 3.1. 영어교육자와 영어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정립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개념과 영역은 매우 다양하지만 교육적인 시각에서는 단지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기술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닌 21 세기의 핵심역량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sup> 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로도 불리우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수 백 년 간 이어졌던 문해력(literacy)의 개념이 확장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문해력에서 말하는 ‘읽기(reading skill)’ 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있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스와 포맷의

**FIGURE 1**  
Changed Concept of Literacy from Language Learning Persp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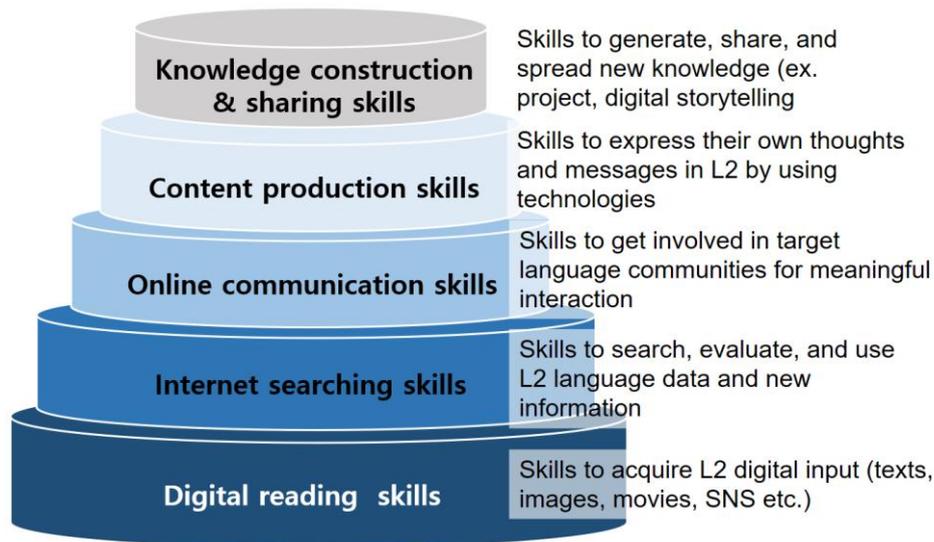
Source: Kim, H. (2021a). Digital learning—Change of education ecology system. In J. Kim, Y. Kim, H. Kim, H. Kim, K. Ma, H. Park, H., ... M. Lee (Eds.), *Live in the digital age* (pp.151-182). Paju: Korea Academic Information.

<sup>2</sup> <http://digitalliteracy.us/>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습득하는 능력(혹은 기술)” (Kim, 2021a, p.169, Figure 1 참조)에 해당한다. 한편 과거의 쓰기(writing skills)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하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식을 생산하고, 수정·보완하고, 재구성하는 능력”(Kim, 2021a, p.169)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과 영역을 요약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학습활동으로 도식화해보면 Figure 2 와 같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 가능하다.

**FIGURE 2.**  
**Five Domains of L2 Digital Literacy**



Source: Kim, H. (2021a). Digital learning—Change of education ecology system. In J. Kim, Y. Kim, H. Kim, H. Kim, K. Ma, H. Park, H., ... M. Lee (Eds.), *Live in the digital age* (pp.151-182). Paju: Korea Academic Information.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업 원리를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구성주의(constructivism) 관점의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미래 핵심역량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멀티리터러시 개념이 적용된 외국어교육에 대입하여 단계별로 지도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리터러시 발달을 위한 외국어 단계별 지도 원칙

1. 디지털 기반 외국어 학습 자료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 입력(구두, 문자, 기타 멀티모드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실제 영어에 친숙해지도록 지원한다.
2. 학습자에게 적합한 내용과 수준의 디지털 언어 자료를 스스로 선택하고, 핵심 사항을 파악하여, 원하는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검색 능력, 비판적 평가 능력, 필요한 이해 전략 등을 길러준다.
3. 온라인 상의 다양한 영어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내하여(교사 학생 간, 학생들 간, 학생과 영어 커뮤니티 간, 테크놀로지와 학습자 간) 언어적, 문화적 상호작용능력을 향상시킨다.
4. 테크놀로지와 웹 자원을 영어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 및 생산 기술을 길러준다(외국어 키보드, 사진, 녹음, 학습용 애플리케이션, 코퍼스 데이터, 각종 디지털 자료,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등의 활용).
5.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과제, 발표(ex. 디지털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등의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외국어 수업 내용에 포함하여 학습자의 총체적인 언어 역량과 을 향상시킨다

위의 영어수업내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지도 원리를 보면 기술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 제 2 언어습득 이론에 근거한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단순한 기술활용능력으로 분리하려는 현재의 교육과정의 방향은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외국어 교육의 핵심역량으로 개념 정립하고, 이에 맞는 지도 원리가 수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인공지능교육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는 사람과 유사한 능력을 가지도록 고안된 최신 프로그램 기술로 앞서 소개한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설명하는 테크놀로지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수 있다(Kim, 2021b). AI 는 언어 자료, 의사소통, 학습보조 프로그램, 언어 혹은 학습자 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그 외국어교육 분야의 영향력은 훨씬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2019년 12월 AI 국가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sup>3</sup>. 이 전략에 따르면 초·중·고 코딩 교육의 의무화는 물론, 2020년도부터 사범대 교직 과목 신설 의무화 및 관련 전공과목에 SW AI 관련 내용과 융합 전공이 신설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영어 교과에 있어서도 영어학습관련 AI 챗봇과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활용 및 개발(Kim et al., 2021; Lee, 2020) 능력을 기르고, 교사와 학습자의 AI 기초지식 및 외국어 수업 활용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 수업 사례 등의 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sup>3</sup>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36>

### 3.2. 디지털 학습생태계에서의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 모형 발굴

Hwang(2020)에 따르면, 포스트코로나 교육에 대한 두가지 해석 방식이 있는데, 첫번째는 재난 대응으로서의 교육이며, 두번째는 에듀테크 일상화로서의 교육이라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장기적인 미래사회를 바라보는 두번째 해석을 따라 영어교육의 도전 과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COVID-19 팬데믹을 통하여 과거 소수의 교육자에 의해서만 선택되던 온라인 수업이 전면 시행되고, 모든 교육 참여자는 이를 직접 주관하며 상당히 장기간 체험하게 되었다. 2020년에는 지금까지 초중고 공교육에서는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었던 학습운영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즉 EBS 온라인클래스룸, e-학습터)을 일시에 대부분의 학교에 적용하게 되었으며, 모든 교사는 비대면 수업을 위한 강의 영상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는 실로 놀라운 변화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기 어려운 에듀테크의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교육을 부분적으로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이른바 K-에듀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공언하였다(Lee, 2020).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1월에는 “K-에듀 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부록 1 참조)<sup>4</sup>.

인프라와 국가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변화는 서서히 그 수업방식과 교사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최근 여러 조사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Lee, 2020). 최근 코로나 비대면 교육에 관한 교사 인식 연구 논문을 보면, 첫째,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저항감은 예상보다 낮고, 신기술에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Kim, 2020; Lee, 2020; Oh, 2021). 교사들은 갑작스런 비대면 교육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충을 경험하였지만(Choi & Choi, 2021; Park & Choi, 2020), 불가피한 ‘뉴 노멀’에 대해 수용하고 미래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습자와 학부모의 경우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여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이나 학습 성취나 참여 태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Kang & Nam, 2021).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학생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학습의 주도성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학습 주도성은 만족도나 학습 효능감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Choi, 2020). 뿐만 아니라 Han 과 Lee(2021)의 연구에서, 온라인 교육에서의 교사 역할의 중요도에 대해서 4-6학년 조사대상 초등학생들은 학습 안내자, 학습활동 관리자, 기술 지원자, 교수 설계자, 학습활동 조력자 순으로 인식하였으며, 평가자나 학습내용 전달자는 가장 후 순위인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 상황의 온라인 교육이 학생들의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sup>4</sup> 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 전자신문 2020.12.29 일자 기사 <https://www.etnews.com/20201229000190>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학습생태계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며 무엇을 검토하고 대비하여야 되는가? Hwang(2020)는 에듀테크의 일상화로 변화할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학습 생태계에서 세가지 영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수업의 형태 변화와 질 관리의 과제이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는 전통적 방식의 오프라인 강의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온라인 강의 활용이 병행될 것이며, 수업 내에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테크놀러지의 활용이 활성화 될 것이다. 따라서 영어 수업의 기존 강의를 단지 온라인으로 변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효과적인 영어수업을 위한 플립 러닝 모형 등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서 제 2언어습득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효과적인 교과 모형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환된 수업의 질이 기존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어야만 전환의 의미가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할 때 부족할 수 있는 실습, 상호작용, 면대면 등의 부분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상호작용과 언어 실습이 병행되어야 할 외국어 수업에 합당한 플립드 러닝 모형은 타 교과와 별도로 연구되고 제안되어야 한다(Kim, 2018).

둘째, 교육과정의 재설계이다. 학습운영시스템이 2023년 예정한 대로 AI 임베딩 통합 플랫폼이 학교에 적용된다면 현재의 교육과정은 현재보다 학습자 맞춤형, 개인화, 유연성이 있는 형태로 개선이 가능하다. 학습자의 요인, 성취도, 평가 결과 등이 빅데이터로 축적되어 분석되고, AI 알고리즘으로 학습자 문제점 진단과 학습 콘텐츠 추천 등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외부 클라우드를 통한 교과서 외의 학습 콘텐츠의 유입이 교과서 중심의 교육과정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강의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외부 콘텐츠 학습 활용, 교과 선택제에서 교외 재직중인 교사의 과목의 수강 인정 등 교육과정의 유연성 혹은 비정형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영어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영어능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 중심 평가, 학습자 요인 진단 및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때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선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교과서 외 학습콘텐츠의 내용 및 활용 방식, 교과 선택제에 따른 새로운 교과목의 개발 등 학습자 요구와 흥미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셋째, 수업 내용의 변화이다. 매체의 변화는 사고 내용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교육 내용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Hwang, 2020). 예를 들어 영어교육의 경우, 원어민 대신 음성인식, 음성 합성을 이용한 AI 챗봇과의 말하기 대화나 자동번역기를 활용한 쓰기 작문, SNS에 이미지가 섞인 비문법적인 텍스트 등이 기존의 언어 입력이나 출력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학습 내용으로 수용할 것인지 등이다. 이미 2장에서 다룬 바대로 언어의 4영역, 지식 및 학습의 개념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학습할 대상의 내용과 실제 역시 달라져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영어교육 과정에서 제시해왔던 학습 요소와 수업 시간에 교사가 강조해왔던 주요 학습내용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세번째 과제인 영어교육의 정상화 노력과도 맞물려 있다.

### 3.3. 영어교육의 정상화 노력: 역량기반교육과정의로의 전환

마지막으로 교육 변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도전 과제는 영어교육의 정상화이다. 이는 수 십년 간 우리나라 영어교육 참여자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해결해내지 못한 숙원 과제들이다. 그간 우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영어교육의 문제를 입시 제도, 제한된 수업 시수, 과밀 학급 등 외적, 환경적인 원인으로 돌리고 외면해왔다. 그러나 에듀테크가 일상이 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러한 외적인 문제가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따라서 뉴 노멀 시대는 영어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리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이에 앞선 두가지 과제보다 더욱 중요한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더 나은 교육(Lee, 2017)”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성취 목표와 성취 평가가 불일치하는 우리의 영어교육과정의 모순은 과감히 개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교과서와 내신 체제는 학습자의 성취 목표 도달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세운 성취 기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개인적인 영어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을 통해 발달시키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논리적인 교육 과정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능력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지 여부는 학습자 영어능력 평가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내신체제에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교과서 위주의 지식 암기 학습 평가는 개인의 성취 수준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새로운 학습운영시스템이 도입되면, 학생 데이터가 다각적이고 누적적으로 저장분석되고, 다양한 학습 평가 콘텐츠 및 음성, 영상 파일 등의 교환 및 피드백을 위한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성취도 평가가 혁신을 이루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수능 영어 읽기 평가 역시 교육 과정의 연장선 상에서 진정한 의미의 총체적인 영어 능숙도 절대 평가, 나아가서 국가적 영어 인증 도구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산출 중심 교육과정(Type A, synthetic syllabus)를 버리고, 과정 중심 교육과정(Type B, analytic syllabus)로의 전환이 필요하다(White, 1988; Yalden, 1987).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술의 분리 교육과, 습득할 지식에 초점을 두는 의미-기능 교육과정(notional-functional syllabus)은 변화된 사회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앞서 2장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언어는 더 이상 4개의 기술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 해졌으며, 그 비중도 균일하지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지식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즉 교육체계의 중심이 ‘학습내용’에서 ‘학습자’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의미-기능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조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의 영어교육도 학습자의 문제 해결 역량과 인지 과정이 강조되는 과업기반교육과정(task-based syllabus, type B)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Long & Crookes, 1992, 1993). 국가 교육과정의 큰 틀 아래의 교과과

지향점이 상반된 교수 요목을 계속 교수해서는 영어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역량(competency)의 영어교육적 개념과 구인을 정교하게 정의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Lee, 2020). 예를 들어 학습자의 영어 역량을 구두 의사소통능력과 뉴 리터러시의 결합으로 볼 것인지 혹은 언어 기술(skills)과 언어 지식(knowledge) 및 태도로 규정할 것인지, 또한 창의적 사고, 학습관리 역량 등 나머지 핵심역량은 영어교과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이 교육계와 학계의 최우선 어젠다로 활발하게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 4. 결론 및 제언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가능성에 주로 기초하고 있어, 예측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미래사회에 대한 개혁과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도전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호이해, 설득, 신뢰,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프로세스이다. 참여자의 합의와 상호 이해없이 개혁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다행히 코로나가 이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모처럼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변화를 위한 추진력과 신뢰는 바로 연구결과의 공유와 축적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과학적인 증거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설득은 영어교육연구가인 우리의 몫이며, 위기에 봉착한 영어교육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영어교육자는 좀 더 현장 중심적, 현상학적인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시대에 부합하고 정책에 반영할 만한 대규모의 거시적 공동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의 교수법 효과성 검증이나 우리의 현실과 연관성이 적은 개별 연구만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학문적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 교육학(Critical pedagogy), 실행 연구(action research), 현장 참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상학 연구(phenomenology), 정책 연구의 기반이 될 전국 단위 조사연구 등으로 신뢰할 만한 참고 자료를 제시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학교, 학회, 영어교육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상 되어야 한다.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어수업평가 모형을 구상하기 위한 연구 결과물, 데이터,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영어교육 학회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영어교육 정책 연구 지원, 영어교육 혁신 사업 발굴 및 공동 연구 주도, 연구결과를 통한 실질적인 현장 적용 개선 노력, 학술 공동체 활성화(학회 연합) 등 회원들의 공통의 어젠다 발굴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육이자, 영어교육연구자의 생각의 전환과 각성이 필요하다. 영어교육을 변화시킬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의 답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올바르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사람은 오로지 우리 영어교육자이며,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우리사회의 인정을 받는 만큼 한국의 영어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주도성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Applicable levels: Elementary, secondary

##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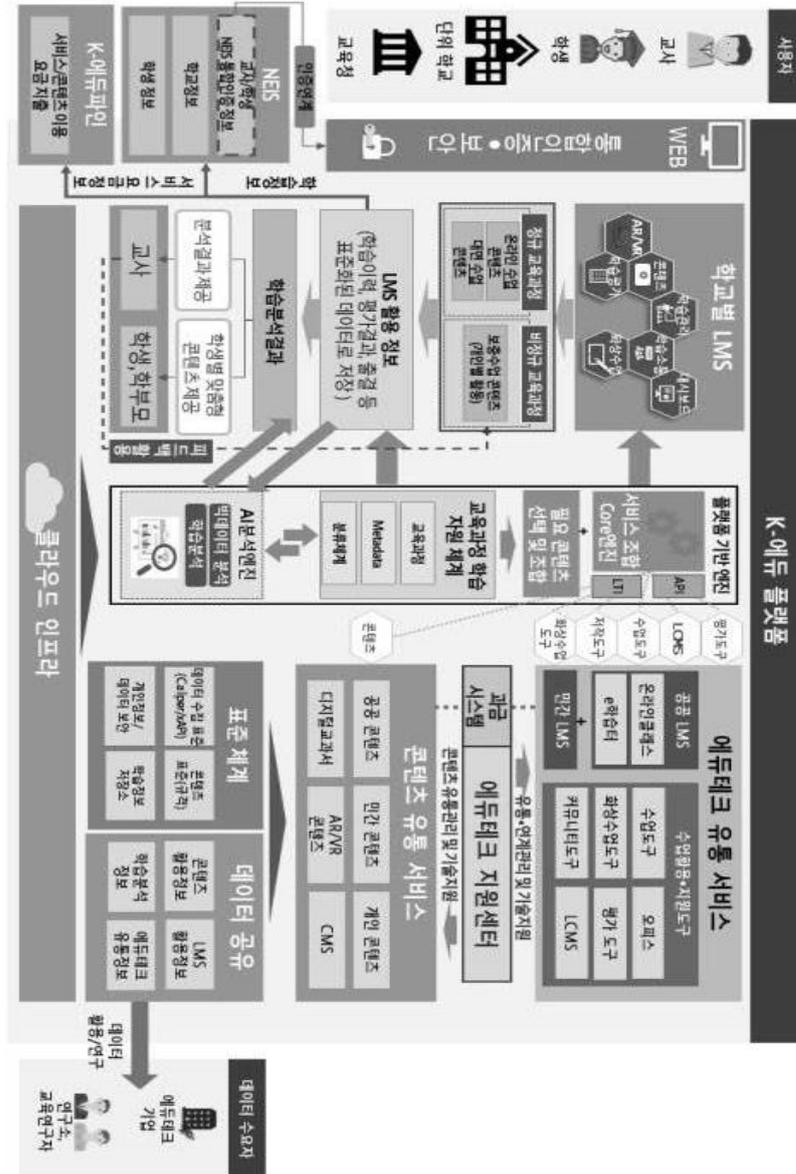
- Androutsopoulos, J. (2011). Language change and digital media: A review of conceptions and evidence. *Standard Languages and Language Standards in a Changing Europe, 1*, 145-159.
- Baron, N. S. (2008). *Always on: Language in an online and mobile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yd, D., & Ellison, N. (2008).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 210-230.
- Chapelle, C. A.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SLA theory and CALL.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3*(4), 742-754.
- Chinnery, G. M. (2006). Going to the MALL: 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0*(1), 9-16.
- Choi, H. (2008). Theoretical study on the value of knowledge in the information society.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5*(4), 223-255.
- Choi, S-K., & Choi, M-J. (2021). Focus Group Interview (FGI) study on 'K-Edu' experienced by school teachers in COVID19. *Journal of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5*(2), 179-189.
- Choi, W. (2020).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directed language learning readiness and satisfaction and perceived achievement of online English classe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 637-662.
- Crystal, D. (2006). *Language and the internet*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ystal, D. (2011). *Internet linguistics*. London: Routledge.
- Dörnyei, Z. & Skehan,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In: C. J. Doughty and M.H. Long, (Eds), *The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589– 630). Malden, MA: Blackwell.
- Ehrman, M. E., Leaver, B. L., & Oxford, R. L. (2003). A brief overview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System*, 31(3), 313–330.
- El-Hussein, M. O. M., & Cronje, J. C. (2010). Defining mobile learning in the higher education landscap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3(3), 12-21.
- Eshach, H. (2007). Bridging in-school and out of school learning: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and Technology*, 16, 171-190.
- Hall, B. (2002). *Among cultures: The challenge of communication*. Orlando, FL: Harcourt.
- Han, J., & Lee, D-y. (2021).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teachers' rol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951-971.
- Harrison, R., & Thomas, M. (2009). Identity in online communities: Social Networking Sites and language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ing Technologies & Society*, 7(2), 109-124.
- Herring, S. C. (2004). Computer-mediated discourse analysis: An approach to researching online behavior. In S. A. Barab, R. Kling, & J. H. Gray (Eds.), *Designing for virtual communities in the service of learning* (pp. 338–37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wang, G. (2020). A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 for post-COVID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8(4), 83-106.
- Ito, M., Baumer, S., Bittanti, M., Boyd, D., Cody, R., Herr-Stephenson, B., ... Tripp, L. (2010). *Hanging out, messing around, geeking out: Kids living and learning with new media*. Cambridge, MA: The MIT Press.
- Kang, H., & Nam, S. (2020). Increase and reproduction of learning gap in life changed by Covid-19: Students and parents' survey study in Kyunggi Province. *Education Review*, 46, 180-193.
- Kim, H. (2015). The history of 50 years of Korea Association of Teaching English. In KATE (Ed.), *KATE 50th Anniversary Book: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ATE* (pp. 42-61). Seoul: Hankookmunhwasa.
- Kim, H. (2018). The flipped classroom as a paradigm shift for teaching EFL in Korea. In S-O. Kweon & B. Spolsky (Eds.), *The Asian EFL classroom: Issues, challenges and future expectations* (pp. 83-102). London: Routledge.
- Kim, H. (2021a). Digital learning—Change of education ecology system. In J. Kim, Y. Kim, H. Kim, H. Kim, K. Ma, H. Park, ... M. Lee (Eds.), *Live in the digital age* (pp.151-182). Paju: Korea Academic Information.

- Kim, H. (2021b). Prelude: New technology of intelligent information 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 Kim, D. Shin, J. Lee & H-J. Yang (Eds.), *Utilization and creation of AI Chabot for learning English* (2nd Ed.) (pp.11-41). Paju: Kyoyookbook.
- Kim, H., & Lee, J. (2018). The value of digital storytelling as an L2 narrative practice. *The Asia-Pacific Education Researcher*, 27(1), 1-9.
- Kim, H., Shin, D., Lee, J., Kim, Y., & Yang, H. J. (2021). *Utilization and creation of AI Chabot for learning English* (2<sup>nd</sup> ed.). Paju: Kyoyookbook.
- Kim, H-J. (2020). A study on the analysis of online class experienc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llowed by COVID-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613-639.
- Kim, J., Jung, K., Kye, B. Cho, Y., Chung, H., & Chung, Y. (2014). Study of establishing the creative digital learning ecology system. In KERA (Ed.),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onference*, (pp.269-271). Korea University, Seoul: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Kress, G. (2003). *Literacy in the new media age*. London: Routledge.
- Kukulska-Hulme, A., & Shield, L. (2008). An overview of Mobile Assisted Language Learning: From content delivery to supported collaboration and interaction. *ReCALL*, 20, 271-289.
- Kwon, Y. (2015). *From informal to non-formal learning of English: Toward sustainable 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Lee, B. (2020). *Education post Moon Jae In*. Seoul: Medici Media.
- Lee, C. S. (2017). Myths and truths of possible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Education. *ERICK Education Column*. Retrieved on July 10, 2021, from <https://21erick.org/column/553/>
- Lee, C. S. (2020). Activating Competency-based curriculum: Request for substantial revision. *ERICK Education Column*. Retrieved on July 10, 2021, from <https://21erick.org/column/5524/>
- Lee, J., Jung, J., & Jung, Y. (2021). *AI educational revolution*. Seoul: Siwon Books.
- Levy, M., & Stockwell, G. (2007). *CALL dimensions: Options and issues in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New York: Routledge
- Long, M. H., & Crookes, G. (1992). Three approaches to task-based syllabus design. *TESOL Quarterly*, 26(1), 27-56.
- Long, M., & G. Crookes (1993). Units of analysis in syllabus design: The case for task. In G. Crookes & S. Gass (Eds.), *Tasks in Language Learning* (pp. 9-54).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Nguyen, L. V. (2008).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Pedagogical fea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structional Technology and Distance Learning*, 5(12), 23-44.
- Oh, H. (2021). The formation and role of Korean English teacher's technological knowledge in the COVID-19.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20(1), 115-136.
- Park, S-H., & Choi, H. (2020). Voices of elementary English teachers on non-face-to-face online education in the era of COVID-19.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9(4), 273-295.
- Son, H-s., & Chin, S-a. (2021). The exploration of university education in post-corona era: A study of the possibility of blended classes. *Culture and Convergence*, 43(2) 15-34.
- The New London Group. (1996).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 Designing social futur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1), 60-93.
- Thorne, S. L. (2003). Artifacts and cultures-of-use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anguage Learning and Technology*, 7(2), 38-67.
- Traxler, J. (2010). Students and mobile devices. *Alt-J*, 18(2), 149-160.
- Warschauer, M. (1999). *Electronic literacies: Language, culture, and power in online educ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hite, R. V. (1988). *The ELT curriculum*.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Yalden, J. (1987). *Principles of course design for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eo, Y. (2020). Shaping the innovation policy in the post-COVID era: Focusing on building creative learning capabilities.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8(4), 153-165.

APPENDIX



(그림 1) K-에듀 통합플랫폼 목표 개념도(안)